

# “내가 책임자” 통합특별시교육감 후보들 지지 호소

출정식 열고 표심 공략 ‘총력전’  
 강숙영, 고교생 추모 일정 시작  
 김대중 “제2의 빛의 혁명” 완수  
 이정선 “아이들 미래 결정 선거”  
 장관호 “경쟁 너머 협력” 가치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첫 날인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후보들이 일제히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사진 왼쪽부터 강숙영·김대중·이정선·장관호 후보(가나다순).

(각 후보 캠프 제공)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일제히 출정식을 갖고 13일간의 레이스에 본격 돌입했다.

강숙영 후보는 광주 광산구 월계동 고교생 흥기 피살 현장 인근에 마련된 추모 장소를 찾아 희생된 학생을 추모하며 선거 운동 공식 일정을 알렸다.

강 후보는 이후 양동시장을 찾아 시·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대중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지지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출정식을 열고 전남·광주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역사적인 전남·광주 교육 통합은 우리 지역도 살고 나라도 살리는 ‘제2의 빛의 혁명’이라며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에너지와 인공지능(AI)은 우리 지역의 새로운 빛”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합특별시 교육감이 돼 미래 산업 생태계와 미래 교육을 결합하고 이를 통해 지역 성장을 강력하게 견인하는 제2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광주 도심 유세를 시작으로 전남 서부권으로 이동, 목포시 하당 평화광장에서 퇴근길 시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첫날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이정선 후보도 오전 7시30분 광주 남구 백운로타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첫 공식 선거운동의 출발을 알렸다. 이어 수완지구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캠프 관계자와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출정식을 열고 교육 혁신 비전과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학생 기본교육수당 연 120만원 지급 ▲1000드림 디딤돌 장학금 조성 ▲전남 미래명장 100인 프로젝트 ▲24시 율케어 통합 돌봄센터 구축 ▲3040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실질

경감 ▲아파트 단지 내 돌봄 거점화 등 주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교육감 선거는 권력의 선거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도덕성과 진정성, 양심의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목포노인복지관 배식봉사 활동과 한빛원 자력 지원사업 명랑운동회, 전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간담회, 2026 광주식품대전 방문, 송암·효천 5·18 추모문화제 참석 등 광주·전남 전역을 돌며 지지세 확산에 주력했다.

장관호 후보 역시 오전 10시 광주 서구 5·18기념회관 계단에서 선거 승리 출정식을 열고 선거 행보를 시작했다.

장 후보는 출정식에서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교

육감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이제는 교육감도 확실한 정권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경쟁 너머 협력’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 장 후보는 “광주와 전남이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나아갈 때 아이들에게 더 큰 기회를 줄 수 있다”며 “통합 교육을 통해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아이들이 진심으로 가고 싶은 학교 ▲교사가 약성 민원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실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등을 약속했다.

/박선옥 기자

## 전남·광주 후보자 토론회 일정 확정

26일 통합교육감·27일 광산을 보전

28일 통합시장 생방송·녹화중계도

6·3 전남·광주 지방선거와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유권자 검증대에 오른다.

21일 광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선거, 비례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선거,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대담·토론회 일정이 확정됐다.

통합특별시장 선거 초청 후보자 토론회는 오는 28일 오후 4시부터 5시15분까지 KBS광주 1층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열린다.

전체 후보 5명 중 초청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정의당 강은미 후보 등 3명이다.

진보당 이종욱 후보와 무소속 김광만 후보가 참여하는 초청 후보자 토론회는 같은 날 정오부터 오후 12시45분까지 녹화로 진행된다. 이날 오후 5시15분부터 6시까지 KBS광주 방송총국을 통해 방송된다.

통합특별시교육감 선거 초청 후보자 토론회는 오는 28일

오후 1시55분부터 2시50분까지 광주MBC 2층 공개홀에서 생방송된다.

이정선·김대중 후보가 초청 대상이며, 나머지 후보 2명은 같은 날 오후 3시55분부터 4시50분까지 열리는 초청의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다.

비례대표 통합특별시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오는 27일 KBC광주방송 3층 스튜디오에서 열린다.

초청 후보자 토론회는 이날 오후 12시50분부터 2시까지, 초청의 후보자 토론회는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각각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초청 후보자 토론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10분부터 3시30분까지 KBS광주 1층 공개홀에서 생방송된다.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후보,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 조국혁신당 배수진 후보가 초청 대상에 포함됐다.

진보당 전주연 후보와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무소속 구분기 후보는 22일 오전 10시40분부터 11시10분까지 녹화되는 초청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다. 해당 토론회는 27일 오후 3시30분부터 4시까지 KBS광주방송총국을 통해 방송된다. /변은진 기자

## 전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 경선 이중투표 유도 자원봉사자 고발

전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1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경선에서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여론조사심의위에 따르면 모 군수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는 지지자 30여명에게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여부를 묻는 말에 ‘당원이 아니다’고 응답할 것을 요구해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리당원 50%+일반 선거구민 50%’를 대상으로 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여론조사 방식 조사에서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면 일반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전남여론조사심의위의 설명이다. /김재정 기자



## “광주를 세계 100대 창업도시로”...‘딥테크 스타트업’ 500개 육성

시·중기부 ‘창업도시 성공 프로젝트’ 협약

인공지능(AI)과 미래모빌리티·에너지를 선도하는 광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대 테크 창업도시’로서 본격 행보를 시작한다.

광주시는 21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전략 발표회’에 참가해 광주만의 특화된 창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성공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행사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등 4개 지역 부단체장,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총장,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지역별 창업도시 추진단 등 산·학·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세계 100대 창업도시 진입’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춘 심층기술(딥테크) 초기 창업 기업 500개 사를 발굴·양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재 밀착형 창업 생태계 조성, 도심 전역의 실증 기반시설 고도화, 혁신 투자 유치 및 원스톱 지휘본부 구축 등 핵심 추진 전략을 펴다.

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광주에서 창업해 유니콘 기업으로 당당히 도약할 수 있는 ‘창업 성공률 높은 기회도시’를 반드시 실현해 세계적인 기술 창업의 매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 기본교육

#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광주광역시교육청